

### 서울시, 공공보건 인프라 확대

# 자치구별 3~4개 보건지소 설립 추진

올해 보건지소 1곳 추가설치 지원  
실무자 역량강화·운영 모니터링  
소생활권 건강증진서비스 강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부족한 공공보건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곳의 보건지소 신규 확충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곳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지소는 1차 진료기능을 지양하고 건강돌봄서비스, 만성질환예방관리, 지역 밀착형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담기관이다.

시는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치구별 보건소 1개만으로는 취약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1개 보건소당 관할 인구는 12만 명(중구)~67만명(송파구)으로 자치구별 편차가 크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 주민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시는 진단했다.

시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4%, 1인가구 비율은 32%, 등록장애인 비율은 4%로, 의료 취약계층이 늘어 맞춤형 건강돌봄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2005년부터 2012년 이전까지 '국비형 보건지소' 5개소를 만들고 이후 2012년 5곳, 2013년 8곳, 2014년 2곳, 2016년 3곳, 2017년 3곳, 2018년 1곳, 2019년 5곳, 2020년 4곳의 '서울형 보건지소'를 추가해 시설 총 36개소를 확충했다.

시는 보건지소 확충 선정 후 자치구 사정으로 취소된 사례는 4건이라고 덧붙였다. 마포구(아현)와 동작구(사당)는 지난 2013년 선정된 후 2015년

취소했고, 성북구(정릉)는 2015년 사전 승인 취소 후 2016년 변경 재공모로 선정됐다. 2018년 선정된 금천구(독산)는 민원 발생과 자치구 사정으로 작년 1월 보건지소 확충을 취소했다.

올해 4월 기준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는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다. 시는 보건지소가 없는 4개 자치구의 공공보건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분소를 보건지소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보건지소 운영비를 확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생활권 기반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구별 3~4개의 보건지소 설치를 목표로 공공보건 인프라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우선 시는 금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건지소 설치비로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벌여 지역 사회 건강관리 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보건지소에 개소당 4300만원 내외로 운영비를 보조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보건지소 운영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국제금융오피스(ONE IFC 16층) 내부 모습.

/서울시

## 서울시, 중미경제통합은행 韓사무소 유치

연내 여의도에 사무소 설립

서울시는 21일 중미경제통합은행(C ABEI)의 한국사무소를 서울로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중미 5개국이 지역 균형 개발과 경제통합을 목표로 '공공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1960년에 설립한 다자 지역 개발은행이다. 중미 지역의 인프라, 에너지 분야 투자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국제금융기구로, 현재 15개국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연내 서울 여의

도(ONE IFC 16층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 '한국 사무소' 동지를 들고, 한국과 중미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무소는 한국기업의 중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로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 지방자본시장, 녹색기후기금 등을 연계하는 경제·투자 협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미통합은행 한국 사무소 유치는 여의도 금융중심지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도약"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신보 지역상권 스토리 발굴 공모전 시상

6개 입상작 선정, 시상금·상장 수여  
서울신보보증재단은 이달 18일 마포구 소재 본점 사옥에서 '지역상권 스토리 발굴 시민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지역상권의 역사와 문화, 특색을 담은 38개의 다채로운 상권 스토리를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6개의 입상작을 최종 선정, 총 500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표창장 및 상장을 수여했다.

재단은 지역경제 주체들과 함께 발굴한 스토리를 활용해 스토리북과 홍보영상을 만들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상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이야

기가 있는 상권, 다시 찾고 싶은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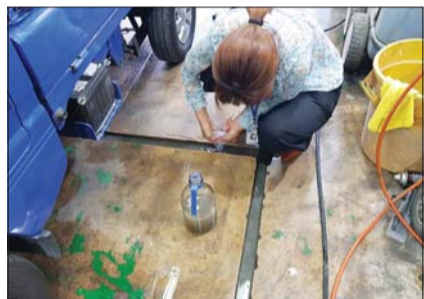
1등상인 대박스토리상은 용산구 소재 퀴는거리를 대상으로 베트남 퀴는의 황금거북이 설화를 접목한 숙명여자대학교 '거북이의 꿈' 팀(전은영·박고은·최희정)이 받았다.

2등상인 중박스토리상은 답십리 현대시장 스토리(장하연)와 관악구 대학동의 녹두거리 스토리(최유정·오준택), 3등상인 소박스토리상에는 성북구 안암동 참살이길 스토리(김도엽·윤소담·손예민·소윤·장지수), 종로구 창신동 골목시장 스토리(김태형·홍선우), 홍대소상공인상점가 스토리(이태진·조정기)가 선정됐다.

/김현정 기자

# “오·폐수 무단 배출 사업장 신고하세요”

서울시 8월말까지 4568곳 단속  
불법행위 신고시민에 포상금 지급



무허가 세차장 단속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총 4568곳이다. 단속에 앞서 시는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후 7~8월엔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시점검을 벌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오·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에는 조업 정지 또는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고 시는 경고했다.

시는 집중호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같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

시설 복구와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를 활용해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현장 실태 점검

서울시는 내달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현장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차 긴급 점검 대상은 도로변에 접해 있는 공사장 9곳이다. 이후 시는 해체

초기 또는 해체 완료(착공 전) 단계인 정비사업 지역 7곳을 상대로 2차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시는 해체 공사 중인 9곳에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 계약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면 시정명령 같은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1 | 해짐 / 19:57

6월 21일 (월)  
음력 : 5월 12일

수도권 날씨  
18 ~ 2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6/27, 동두천 17/27, 가평 16/27, 파주 16/28, 서울 18/28, 양평 17/28, 인천 18/24, 수원 18/27, 용인 18/27, 평택 16/28, 백령도 17/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 미국 정부, 이란 라이시 신정부와 대화에 의욕 표명
- ▲ 일본 “코로나 재확산하면 도쿄올림픽 무관중으로 치리”

- ▲ 나이지리아 무장그룹, 대학교 습격 학생 최소 70명 납치
- ▲ 미국, 대만에 백신 250만회분 지원.. 계획보다 3.3배 ↑



- ▲ 브라질 코로나사망 50만명 돌파... 방역정책에 항의시위
- ▲ 메르켈 총리 “80년 전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 수치스럽다”